

## 코로나 1년 ... 사라진 일상



20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19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2100여명 확진 ... 회사원 재택근무·학생 비대면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임 대신 '집콕 생활' ... 경제도 문화도 '스톱'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꼭 1년이 흘렀다. 광주·전남에선 지난해 2월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됐다는 희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일 상과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세계 역사를 코로나19 발생 전과 발생 후로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년만에 광주·전남 지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관련 기사 3면」  
'몽치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웃은 물론 가족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대가 됐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언택트(비대면·비접촉)도 일상이 됐다.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과 누적되고 있다. 특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 방역 최일선에서 1년째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고통도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광주에선 시민 10명 중 3명 꼴인 총 42만 1502건의 검사가 진행돼 이날 현재 14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선 총 32만 1845건의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669건(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역내 코로나19 상황을 크게 보면 신천지 발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상무지구 유흥업소·방 문판매·광화문 집회 관련 '2차 대유행', 호프집·교 도소·전남대학교 병원발 '3차 대유행'을 거쳐 현재 효정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관련 '4차 대유행'이 진행중이다.

연령별 확진자는 50대가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명, 20대 211명, 40대 203명, 30대 149명, 70대 123명, 80대 87명, 10대 83명, 10대 미만 35명, 90대 이상 29명 순이었다. 사망자는 14 명이다. 지역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유발한 곳은 광주 효정요양병원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만 153명에 이른다.

전남에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0만명당 발생률이 35.88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누적 확진자 566명) 전남의 코로나19 환자 평균 연령은 44.5세다. 연령대는 5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8명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지침을 어기는 지역민도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구속됐다.

일상생활도 확 바뀌었다. 마스크는 오히려 쓰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할 정도로 필수품이 됐고, 일상적인 만남이나 모임도 금기시 되고 있다. 회사마다 재택근무제가 도입되고,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들도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일상의 소중한 추억 중 하나인 입학식과 졸업식을 온라인 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 집 에 따라 가족 단위 국내 여행객이 크게 늘고, 타 인과 철저히 차단된 풀빌라 등은 매진 행렬을 기록 할 정도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이 집안에서 이뤄지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와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홈식' 등이 대유행이 다.

지역민의 '집콕' 생활 유행은 자영업자에게 고통 이 되고 있다. 광주의 대표 상권인 충장로 등에는 '보증금 없이 새 주인'을 찾는 임대점포들이 쏟아지 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2000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시민에게 제공했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추가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 번엔 그동안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업소도 포 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은 조만간 시작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접 종 시작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지면 미국 국가 제창, 기도가 이어진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소니아 소토마요 르 연방대법관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뒤이어 바이든 당선인도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에게 취임선 서를 한다. 취임 선서는 낮 12시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 20일 낮 12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취임 선서가 끝나고 12시 종이 울리면 바이든의 신분 은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변한다. 바이든은 제 46 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취임사를 내놓는다. 취임식을 끝낸 바이든 대 통령은 의사당 동편으로 이동해 군대의 사열을 받 는다. /연합뉴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일 새벽 취임

### 전염병·테러 우려 취임식 행사 대폭 축소...코로나 극복 '속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취임식이 대폭 축소 됐지만 첫날부터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이용 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면」  
미 공영 라디오 NPR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은 취임식 전날 델라웨어주 자택을 떠나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이 하우스'에서 묵는다. 취임식 당일 아침에는 예배에 참석할 것 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바이 든 당선인은 존 F. 케네디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미사를 볼 수 있다. 과거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작 됐다. 연방의사당 서쪽 야외무대에 마련된 취임식

알립니다

##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운



유현준 양정무 김대식 강신주

### 고수들의 명 강연...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전면 개신 나선다 ▶2면
- 서울 학생 77명 전남 시골학교로 유학 ▶7면
- KIA 임기영, 신혼의 단 품 대신 10승 품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새롭고 놀라워  
많은 사용 후 만족 100만여명

##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만 40~50세 성인 여성(평균) 2019.09.16~10.17 4주간(10주) 임상 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